

# 전남도, 9월 소·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77만여 마리 대상... 10월부터 항체양성률 검사로 관리 강화

### 20억 원 투입 소 10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 지원도

전남도는 9월 한 달간 모든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반기에 접종한 백신 항체가 소실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하며, 접종 대상은 전남지역 소·염소 77만여 마리다.

전남도는 철저한 백신접종을 위해 자체 사업비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의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지원반은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으로 115개 반 240명을 편성·운영한다.

또한 접종 4주 후인 10월부터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 농가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지속해서 검사를 한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전남 축산농가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재발의 위험이 있으니 농가에서는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에선 3월 13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

한 이후 4월 13일까지 영암 13건(소, 무안 6건(소 1·돼지 5), 총 19건이 발생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9월에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인 남구 동행카드를 3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골목경제가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대적으로 공급해 판매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중이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동행카드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달간 지역사회에 공급된다.

## 광주 남구, 추석 전 '동행카드 상품권' 30억원 발행

### 18% 할인 혜택... 향후 5년간 사용 가능, 골목경제 활성화 군북

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식 카드로 발행하는 지역 화폐로, 해당 카드는 5만원권과 10만원권, 50만원권 3가지로 발행한다. 판매 전통시장인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백운대성시장 등 3곳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남구 동행카드 가맹점에 등록한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남구 동행카드의 최대 장점은 최고 18%까지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8월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 동행카드를 구매한 소

비자는 지역 화폐 10% 기본 할인에, 국가에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할인율 8%까지 더해 총 18% 할인 혜택을 받는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남구 동행카드 최대 금액은 50만원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화폐인 남구 동행카드 발급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상권까지 되살려 지역민의 생활 경제를 지탱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역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선다. 서구는 (재)광주서구장학재단이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년 장학생 116명 모집, 장학금 총 2억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학재단은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선발 분야인 성적우수, 행복(일반·생활비), 다자녀, 장애인 등에 ‘꿈지원 수기공모’와 ‘예체능 특기생’을 새롭게 추가했다.

## 서구, 인재 육성 장학금에 2억 60만원

### 9월 1일부터 장학생 116명 모집... 선발 분야 확대까지

‘꿈지원 수기공모’는 최근 2년간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활용 성과와 진로·적성 발굴 과정을 수기로 제출하는 방식이며 ‘예체능 특기생’ 분야는 광주광역시 이상 주관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고등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 대상은 8월 29일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이며 대학생·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각각 91·20·5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서구청 누리집 장학재단 소식란에 게

시된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행복교육과(062-360-7923) 또는 서구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박찬갑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이거나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꿈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 광주시, “9월1일 ‘청바지’ 입고 출근하세요”

### 9월 1~5일 청렴축제... 청렴·상호존중 문화 정착 다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청렴문화 확산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2025 청렴주간 청렴축제'를 연다.

올해 청렴축제는 전 직원이 평등의 상징인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 줄임말)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존 청바지데이를 청렴축제로 확대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직자 청렴 강화를 위한 의명신고 모의훈련 ▲감질 예방 교육 및 청렴 특강 ▲문화공연과 청렴라이브 ▲직원 참여 청렴캠페인 및 체험행사 ▲전 직원 청렴다짐 공유 행사인 '청렴데이(DAY)' 등이다.

특히 청렴주간 첫날인 9월 1일 오전 출근길에는 고광안 행정부시장이 직원들에게 청렴 기념품을 전달하며



청렴한 광주 조성을 홍보한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청렴은 공직 사회의 기본 가치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청렴축제를 통해 상호존중의 조직문화와 함께 청렴이 전 출근길에는 고광안 행정부시장이 직원들에게 청렴 기념품을 전달하며 /이승원 기자

## “장애인의 꿈과 자립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배치기관 간담회 개최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지난 28일 동구 장애인복지관 직원 지원동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치기관 47개소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져 회의장은 따뜻한 연대의 장이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행기관과 배치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및 업무 공유 ▲현장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단순한 고용이 아닌 삶의 희망을 여는 통로라는 인식을 나누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임택 동구청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가능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사회적 약속이다”면서 “앞으로도 배치기관과 함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 북구, 청년창업공간 입주 청년 모집... 임대료 '0원'

### 오는 16일까지 서류접수 후 면접 심사 거쳐 최종 입주자 9명 선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오는 16일까지 청년창업공간에 입주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북구가 운영 중인 청년창업공간은 안정적인 청년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24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공공 임대주택(각하, 오차1, 두암2, 두암4) 4개소 상가 내에 조성되었으며 이번 모집을 통해 9명의 신규 입주자를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35세의 청년 중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경력이 3년 이내인 초기 창업자이며 최종 입주자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062-410-8225)에 문의하면 된다. /송현근 기자

단,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공간 운영에 필요한 일부 실비는 별도 부과된다.

입주자 선발은 서류 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입주 청년에게는 공간 제공을 넘어 창업 전문 교육기관 프로그램 연계,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방침이다. 창업공간 입주를 신청하려는 청년 창업가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062-410-8225)에 문의하면 된다. /송현근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뉴노멀플레이그라운드: 감각으로 연결되는 놀이터'는 빛·소리·자연을 느낄 수 있는 원형 공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 '모두가 편안' 광주송정역에 녹아든 포용 디자인

20년 넘게 광주 시민의 발이 된 광주도시철도가 포용 디자인을 품고 재탄생한다. 장애 유무, 신체 조건, 국적과 언어 등 신체와 문화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

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든다.

이 프로젝트는 주요 정거장이자 교통량이 많은 송정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주도해 시설물을 디자인했다.

정류장은 휠체어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는 확 넓은 개찰구, 어두운 환경에도 잘 보이는 비상 시설물, 큼직한 출구 표기, 부드러운 곡선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자, 분명한 방향 지시물 등이 설치된다.

광주비엔날레는 올해 안으로 광주교통공사와 협의해 광주송정역사 보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국제 심포지엄과 72시간 포용디자인챌린지

국제 심포지엄은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열린다.

'함께 디자인하고, 함께 살아가다'(Design Together, Live Together)를 주제로, 국내외의 포용디자인 전문가들이 세계적 관점·혁신적 접근·사회적 파급 효과 등 세 가지 주제로 발표한다.

세계디자인협회(WDO) 회장 토마스 가비, 모두를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ll AS) 설립자 오니 아이하구오, 유럽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Europe) 회장 라마 가라우 등이 참석한다.

72시간 포용디자인 챌린지는 개막 이틀 날인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열린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개국 14개 디자인 대학의 학생 40여 명이 참가해 6~7명씩 짝을 이뤄 포용디자인 제품과 그래픽, 서비스 디자인을 선보인다.

최수신 총감독은 “포용 디자인은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배려의 영역이 아닌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상의 언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